



# 잊혀진 '애랑이 보레 읍데가' "제주산 뮤지컬 회생 관심을"

98년 제주관광민속관 초연 제주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 이듬해 전국 순회 후 맥 끊겨 지난해 극단 가람서 재공연 레퍼토리화 작품 발굴돼

꼭 20년 전, 제주산 뮤지컬이 그 꿈을 채 피워내기 전 막을 내렸다. 1998년 초연 이후 상실 공연을 벌였고 전국 순회 공연까지 이어졌던 '애랑이 보레 읍데가'이다.

이 작품은 제주가 배경인 고전문학 작품인 '배비장전'을 바탕으로 했다. 박병도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아 배비장 대신 제주여인 애랑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민속뮤지컬'로 제작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문화 상품'으로 키우겠다고 애초부터

회 부설 제주관광민속예술단이 제주 시 지원을 받아 6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무대에 올랐다.

출연진이 40여명에 이르고 공연 시간이 1시간 40분이 넘는 등 당시만 해도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이 작품은 제주민요 40여곡을 모티브로 뮤지컬 넘버를 만들었고 무속굿춤, 물허벅춤, 해녀춤 등이 등장했다. '제주 토종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999년에는 서울 문예회관, 전북대, 순천 전국연극제 축하공연 무대도 누볐다.

하지만 제주관광민속관 운영난으로 '애랑이 보레 읍데가' 상설 공연은 중단됐다. 일부 단체에서 뮤지컬 중 일부 장면만 골라 보여주거나 이름을 바꿔 공연되며 간신히 명맥을 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극단 가람이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으로 설문대어 성문화센터에서 '천하일색 애랑'으로



1998년 제주관광민속관에서 초연대 전국 순회 공연까지 가졌던 '제주 토종' 뮤지컬 '애랑이 보레 읍데가' 사진-제주예총 제공

제목에 달리해 공연했고 제주문화원의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에서는 50분으로 줄여 선보였다.

'애랑이 보레 읍데가'에서 배비장으로 출연했던 부재호 제주예총 회장은 "그동안 몇 차례 재공연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쉽지 않았다"며 "제주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무용인과 스태프들이 한데 힘을 합쳐 만들었고 관객 반응도 좋았던 만큼 제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가꿔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극단 가람의 대표인 이상용 제주 연극협회 회장은 "좋은 작품이 사장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천하일색 애랑'을 공연하게 됐고 올해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와 제주목관아에서 다시 공연을 갖는다"며 "이 작품을 포함해 앞으로 제주 연극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 브람스 교향곡에서 제주민요 관악곡까지

제주교향악단·서귀포관악단 매일 같은 시간 각각 정기공연

'불금'을 앞둔 목요일,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서귀포관악단이 같은 날,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나란히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제주교향악단은 이날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제14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서귀포관악단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 64회 정기연주회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를 채운다.

서귀포관악단은 이흥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성악·튜바 협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연주곡은 제주출신 재일교포 작곡가인 오사카 음악대학 교장수 교수의 창작곡

'3개의 제주도 민요', 튜비스트 김남호가 협연하는 장 필립 방베셀레의 튜바와 관악단을 위한 협주곡 '마크의 손님', 소프라노 황신영이 협연하는 김동진의 '진달래꽃'과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흐르던 '아! 그이인가', '관악 곡의 거장'으로 불리는 토마스 도스의 '교향곡 1번'으로 짜여졌다. 입장료 무료. 문의 760-2494.

제주교향악단은 정인혁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4곡을 준비했다. 스메타

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물다우', 비제의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르멘 환상곡,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a단조',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이 차례로 연주된다.

비제 곡은 플루티스트 박지승이 협연한다. 미국 플루트내셔널협회 콩쿠르 최연소 1위, 알렌산더 부오노 국제 콩쿠르 1위 경력 등이 있는 연주자다. 입장료는 유료. 문의 064)728-2776. 전선희기자

## 밖거리음악회로 관악제 미리 즐겨요

사전 공모 12개팀 참여 8월 4일까지 도내 곳곳

제주국제관악제를 미리 즐기는 음악회가 잇따른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현을생)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앞두고 사전공연인 밖거리음악회를 이어간다.

밖거리음악회는 지난 4일 가파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하도, 성산포, 금악, 서귀포 등 8월 4일까지 총 8회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사전 공모를

거친 연주단체 12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빛깔의 음악을 풀어놓는다.

남은 일정은 ▷5월 25일 오후 3시 금악리 삼위일체성당 (제주윈드오케스트라) ▷6월 8일 오후 7시 연동수목원길 제주야시장 (수(秀)플루트 주니어앙상블, 오픈퍼션 타악기앙상블) ▷6월 22일 오후 3시 성산읍 고성리 플레이스캠프제주 (오픈퍼션 타악기앙상블, 제주브라스앙상블) ▷7월 6일 오후 6시 서귀동 서귀포관광극장 (제주플루트 카른앙상블, 프리버드) ▷7월 20일 오후 3시 연동 설문대어린도서관 (칸타빌레하모니



지난 4일 열린 가파도 선착장 밖거리음악회.

중주단, 제주클라리넷파이어) ▷8월 3일 오후 3시 건입동 사라봉유계지역 (멜로우톤+제주 숨 하모니카, 에코색소폰앙상블, 화북윈드오케스트라) ▷8월 4일 오후 3시 하도리 해녀박물관 (제주오카리나합주단, 노이

튜바앙상블)이다. 이중에서 5월 25일 음악회에는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지휘 임대홍)가 소프라노 오능희, 클라리넷 주자 김동현, 엘트색소폰 주자 고경과 호흡을 맞춘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고재만의

### 제주어기암한판

<153>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 "성산 앞바당 하늘이 빈적빈적 흐렸주. 놀개영 폴랭이서 터러덜이 하늘이영 하간디 툰 놀아맹겨주."

오 맹 이 : "하르바님-개민 오방색 터러덜이 남섬추록 뇌름에 놀아맹겨시킨게마씀."

(오맹인 오방색 생이 폴랭일 7져서민헝영 이와길 들없저.)

즐 내 : "하르바님 계난 그 왕생인 무사 먼헌호 하늘에만 이섯수과? 땅더레 느려오젠은 안 헝연마씀?"

#### \* 제주어 풀이

\*폴랭이(교랑자, 포랭이, 폴냉이, 폴랑자, 풀리, 풍랑자, 풍랭이) : <이름>교리. 골지. \*툰 놀아맹겨주 : 모두 날아다녔지. \*개민 : <어찌>그렇게 하면. \*남섬(남섬, 남섬상기) : <이름>나뭇잎. \*놀아맹겨시킨게마씀 : 날아다녔겠는데요. \*7져서민헝영 이와길 들없저 : 가졌으면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무사(웨) : <어찌>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의 뜻으로 물음을 나타내는 말. \*먼헌호 하늘에만 이섯수과? : 먼 하늘에만 있었어요? \*느려오젠은 안 헝연마씀? : 내려오려고 안 하는지요?

-부호->이름>이름(명사)/<그림>그림(형용사)/<음악>음악적(동사)/<어찌>어떻게(부사)/<대어>대어(명사)/<생>생(수사)/<스름>스름(감탄사)/<토>토(조사)/<때>때(가림소)/<이름>이름(명사)/<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 제주 청춘들 4·3 연극 '순이삼촌' 무대에

제주국제대 영화연극학과 현기영 동명소설 바탕으로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공연

연출을 맡은 류태호 지도 교수는 "4·3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자 노력했다"며 "4·3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기억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들의 원혼이 조금이나마 달래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이달 30일부터 31일 동안 제주국제대 3호관 소극장에서 이어진다. 30일 오후 6시, 31일 오후 4시와 7시30분, 6월 1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다. 예매 문의 010-4879-2316. 전선희기자

짜여졌다. 영화연극학과 학생들은 연습 기간 내내 4·3의 참상에 아파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마음을 다졌다고 한다.

이 작품은 제주출신 현기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1948년 4월 3일부터 북촌리 학살 사건까지, 1979년 봄부터 순이삼촌이 죽은 1980년 1월 17일까지 시공간을 두 개로 나눠 극이 펼쳐진다. 출연진은 박주남 학생 등 8명으로

찾아오시는길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표선면 가시리)

## 2019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 건강수명 바꾸는 힐링숲 '사려니'

# 열한번째 2019. 5. 25 ~ 6. 2

##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EVENT 개막식전 행사**

- 로천 김대규 화백(한국화가, 무형문화재) 달마대사도 퍼포먼스
- 개막식 당일(09:00~소진시) '표고버섯숙' 500인분 제공 (제주시 산림조합)
- ※ 1회용품 사용자체를 위해서 개인 그릇 및 수저 지참 바랍니다.

11th Saryeoni Forest Eco-healing Experience

**무대 공연**

09:45~10:00	색소폰리스트 김수환 (이문세 밴드) 재즈팝 피아니스트 신우균 (박정현, 기미 세션) 가수 신형원 & 재라진소년소녀합창단
10:00~10:30	개막식
10:30~11:00	가수 신형원 & 밴드 특별 공연
11:00~11:30	북 & 토크 콘서트 (제주도 사진인기 자자 강경숙) *작가 친필사인 도서 증정 이벤트
11:00~11:30	색소폰리스트 김수환 (이문세 밴드) 재즈팝 피아니스트 신우균 (박정현, 기미 세션) 가수 밴드 공연

**6.01 (목)**

11:00~11:30	가수 홍선민 & 피아니스트 오윤재 (유지철 열리자넷, 영웅 연주)
11:30~12:00	북 & 토크 콘서트 (제주도 사진인기) 자자 강경숙) *작가 친필사인 도서 증정 이벤트
12:00~12:30	홍조밴드
11:00~11:30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듀오 (이진현 & 서준영)
11:30~12:00	북 & 토크 콘서트 (동화작가 겸 시인 오하나)

**6.02 (금)**

개막일시 | 5월 25일 오전 10시 (식전행사 오전 9시 45분)  
개막장소 | 남조로 붉은오름 입구에서 200m 지점 특설무대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후원 | 삼양정  
주관 |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문의 |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T.064-750-2291

### (주) 유한고속관광

http://www.yeuhangosog.com

통학버스(등·하교)/현장학습/수학여행/오름친목/결혼수송(전세버스 70대 보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보로 306(영평동), TEL.724-9595, 0995 FAX.724-4411

| 참여기관 | 제주시공원녹지과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 제주시산림조합 / 서귀포시산림조합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이엽대산림연구소 /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관광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세계유산본부/제주생태교육연구소 / 시민법인 한라산둘레길 / 제주도산악연맹 / 한라일보사